
프랑스 난임시술 보험지원 사례 프랑스 출장보고서

2018. 11.

□ 출장목적

- 프랑스 난임시술 보험급여 정책과 출산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대한 국내 도입 시사점 자료수집

□ 과제명

- [수탁18-069-00]2017년난임부부지원사업결과평가및저소득층지원실태분석

□ 출장기간

- 2018. 10. 16(화) ~ 10.21(일) [4박 6일]

□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 출장자

- 황나미 명예연구위원, 이상림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지역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18.10.17. (수)	프랑스 파리	프랑스 건강보험 (l'assurance maladie)	Dalhia Aissat 국제관계담 당관(Internat ional Relation Officer)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건강보험 현황 ② 프랑스 난임지원 체계등
18.10.17. (수)	프랑스 파리	불임환우회 (Association de patients de l'AMP et de personnes infertiles, BAMP)	Virginie Rio 환우회 대표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이용실태 ② 난임생식보조술 운영 및 관리 현황
18.10.18 (목)	프랑스 파리	의학진흥원 (L'Agence de la biomedecine)	Francoise Merlet (ART Referent)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관리현황 ② 시술 지원 관련 정부 당면 과제
18.10.19 (금)	프랑스 아르젠튀 이	Argenteuil Hospital	Philippe Jonveaux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이용과정 ② 난임생식보조술 운영실태 및 전문의 양성 문제 등

1. 프랑스 건강보험 (l'assurance maladie)

- (일시 및 장소) '18. 10. 17(수) 10:30~13:00, 건강보험 회의실
- (참석) Dalhia Aissat 국제관계담당관(International Relation Officer)
- (면담 내용)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건강보험 현황 ② 프랑스 난임지원 체계 등

□ 기관 개요

- 프랑스에는 총 180개의 난임지원 센터가 존재하며, 최근의 기록을 보면 생식보조술은 147,732회 시도되어 그 중 24,609명의 아이가 탄생하여 약 16.7% 정도의 성공률을 보임. 2018년 프랑스 출산에서 보조출산에 의한 출산은 3.4% 수준
- 최근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프랑스에서 난임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평균 출산연령은 30세를 넘어섬.
-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서 프랑스는 80년대부터 세 번째 출생아에 대해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등 격려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 정책인 모의 육아휴직은 출생 후 16주(4개월 정도)까지 급여를 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예처럼 건강보험이 출산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
- 불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령으로 지정 되어있는데, 커플이 의학적으로 난임이 확인되어야 함. 동거부부도 대상이 되지만 커플은 이성부부이어야 함. 동성부부 경우는 네

덜란드와 같이 동성부부 시술이 가능한 국가에서 자비로 하여야하는데, 그 비용이 높음

△ 내년부터는 여성동성부부 및 독신여성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이 이뤄지는데, 정자공여를 통해 비용이 저렴한 편

○ 동거부부는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가족주치의(산부인과도 가능하지만, 주로 가정과의)에 의해 부부 모두(남편의 정자활동성 등 포함) 난임을 확인받아야함. 2년 동안 난임인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며, 2년 동안의 시술 이후에도 임신에 실패할 경우 비용을 전액 환불해줌.

△ 프랑스에서 의사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1범주는 건강보험의 수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제한된 횟수 이상 또는 제한 연령 이상의 시술은 실시하지 않음. 그러나 비범주 의사의 경우 주로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보충보험으로 이용

○ 난임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에서 허가 받은 센터로 담당이 옮겨지는데, 이곳에서 생식보조술 방식이 결정됨(인공수정 → 체외수정의 단계가 없음).

○ 지원 대상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어드밴티지 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 지원을 위해 43세 연령 제한이 존재. 시술은 무한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인공수정은 6회, 체외수정은 4회까지로 한정.

- 보조시술 이용시 80% 정도는 4~6회 사이에 임신

○ 이러한 규정은 의학진흥원 (L'Agence de la biomedecine, The Biomedicine Agency)이라는 에이전시에서 결정

- 체외수정의 경우 필요시 배아 이식 후 3~7일 간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입원비를 지원(휴가는 개인사용)

2 불임환우회 (Association de patients de l'AMP et de personnes infertiles, BAMP, Association of AMP patients and infertile people)

- (일시 및 장소) '18. 10. 17(수) 13:30~15:00, 파리 의회 인근
- (참석) Virginie Rio 환우회 대표
- (면담 내용)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이용실태 ② 난임생식보조술 운영 및 관리 현황

- 환우회 대표는 유전학, 안락사, 인공수정 등과 같이 윤리와 생명에 관련된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데, 이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나오는 길에 인터뷰가 진행됨
- 해당 단체의 목적은 난임부부가 경험하는 상황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음. 프랑스에서는 50~60년대까지 난임(불임)이 성병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난임공개에 대한 사회적 타부가 존재. 이러한 인식이나 관념을 바꾸고 의학적인 처치와 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 공청회 등에 적극적 참여. 또한 지역적으로는 불임부부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들을 위한 센터나 조직 연결을 도모.
- 프랑스에서도 난임부부는 힘들어 하며, 불임부부들끼리만 고립되는 경향도 존재. 그 이유는 불임에 대한 타부를 벗어나

기 힘들기 때문. 친구, 동료, 가족들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음. 그래서 협회의 역할이 필요하며, 인식 및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현재 회원은 300명(남성 포함)으로, 대부분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성부부로 구성.
- 시술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일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주로 에이전트(의학진흥원)의 평가를 이용. 횃수나 사고율, 성공율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 시술한 부부의 임신 가능성에 의해 그 결과가 다르므로 리스트 이외의 정보가 필요. 이러한 정보를 위해 컨퍼런스 등에 참여함
 - △ 컨퍼런스는 심리, 상담, 정책, 사회과학 분야, 산과 및 공무원 등 비의학 영역에서도 참여함.
- 프랑스에서는 배란 이식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에이전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공수정 한 경우 세 쌍둥이가 14명, 시험관 아기의 경우 20명으로 나타남. 어떤 경우는 여성이 이를 문제 삼아 병원에 항의한 경우도 있음. 에이전시에서는 세 쌍둥이인 경우에 대해 주의하기를 경고.

3. 의학진흥원 (L'Agence de la biomedecine, The Biomedicine Agency)

- (일시 및 장소) '18. 10. 18(목) 11:00~13:00, Agency 회의실
- (참석) Francoise Merlet (ART Referent)
- (면담 내용)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관리현황 ② 시술 지원 관련 정부 당면 과제

□ 기관 개요

- 의학진흥원(이하 에이전시)는 2003년에 만들어졌고, 약 15년 전부터 국가의 불임 관련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장기이식, 산전검사, 불임 관련 등 생명윤리 실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
 - △ 프랑스 생명윤리와 관련 된 내용은 94년 처음 법령으로 반포. 이후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1994, 2004년, 2011년에 수정이 있었고 지금도 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
- 이 법령에 따라 에이전시는 생명윤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안전, 품질 등을 관리하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하는 방문해서 기관이 적합한지 판별. 예를 들어, 난임시술 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하고 생물학자 등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허가를 결정. 허가는 7년 마다 갱신해야 하고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
- PGS나 PGD (배아 유전자 검사)는 가족이 유전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허용.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정을 위반하는 유전자 검사 자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패널티 규정도 없음

- 배아 이식의 수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에는 1~2개 사이 시술을 권장. 만약에 복수의 시술 시 그 이유를 기재하며, 별도의 처벌은 없음. 평균 1.6개 시술.
- 3개 이상의 시술도 환자의 동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설명을 전제로 함. 한편 의사는 이 경우 시술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
- 체외수정은 4회까지로 제한되는데, 의학적으로 난임은 질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4회 시술부터는 질병에 대한 정해진 처치가 끝난 것을 의미(“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님”). 추가 시술을 원한다면 건강보험 지원은 안되지만 시술은 가능. 하지만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을 것
- 이러한 규정은 재정안정성, 산모의 건강권, 생명 윤리 등을 모두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조치임.
- 프랑스 시술기관(연구소를 같이 운영하는 병원, 클리닉 등)은 102개소이고, 단독 연구소는 90개소 존재. 단독 연구소는 인공수정 정자 준비만 하는 곳. 인공수정만 하는 연구소에도 가급적 클리닉과 함께 할 것을 권유

4. 시술병원 (Argenteuil Hospital)

- (일시 및 장소) '18. 10. 19(금) 15:00~18:00, 병원 진료실
- (참석) Philippe Jonveaux
- (면담 내용) ① 프랑스 난임생식보조술 이용과정 ② 난임생식보조술 운영실태 및 전문의 양성 문제 등

- 프랑스에는 102개 시술기관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절반 가량이 있으며 대체로 공공기관 특히 대학병원이 더 질이 좋음. 그러나 환자의 선택이 크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아르젠티유에는 두 곳만이 존재.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가 많고, 접근도가 떨어져 자신의 지역 시설을 이용
- 환자의 선택은 근접성, SNS 등에서의 평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함. 예를 들어 클라마흐라는 센터가 있는데 1980년에 처음으로 프리드만박사가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서 유명함.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발간하는 임신성공률 등 평가통계를 통해 판단하기도 함.
- 의사들은 이 평가에 압박감을 받는데, 매년 결과를 에이전시에 보내 보고서가 발간되며, 이에 따라 경쟁센터나 고객들의 압박을 받음. 예를 들어 43세 이상 환자가 요청할 경우 성공률이 낮아 통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술을 기피함. 이와 같이 센터마다 자신의 방침을 수립하며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지침에서 정한 환자의 경우는 거부할 수 없음.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 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연령에 상관없이 인공수정 3~4회 시술 후 성공이 안되면 체외

수정을 실시함. 이는 환자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와의 재검토를 통해 결정됨.

- 시술의 자격은 의사이면서 의학 생물학 전공의임. 의과를 나오면 바이오 메디컬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4년을 인턴과정을 거침. 4년 중 2년은 일반 인턴 과정이고 나머지 2년이 마스터(석사)과정으로, 석사과정 1은 생식 생물학을 하고, 두 번째는 생식 생물학 프로과정으로 소수만이 이러한 과정을 마침.
- 배아 연구원(테크니션)은 2년 과정인데, 이러한 학사 학위자는 센터에 들어가서 직능교육을 6개월 정도 받는데 이 기간은 센터마다 상이함.